# LUXURY

OCTOBER 2021

GOLF SPECIAL

전 세계 글램핑 명소 5

FIGURATIVE PAINTING

Cartier

ART

# Korean Figurative Artists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현재를 감각하는 작업을 펼치는 구상 회화의 세계. 이 분야에서 독보적 형식을 직조하며 빠르게 팽창하는 미술 시장과 세계적 갤러리들의 주목을 받는 6인의 한국 작가들을 소개한다.

'무대정리 02' ⓒ안천호, 국제갤러리

## 박진아가 채집한 일상적 순간

지난 9월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개인전 <휴먼라이트>를 마친 박진아 작가. 카메라를 도구 삼아 스쳐 지나칠 법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회화로 그려낸다. 촬영장 한편에 조명을 든 촬영 스태프, 공연이 끝난 뒤 무대를 정리하는 연주자 등 회화 속 인물들의 움직임은 각 잡힌 모습이 아닌 어딘지 어정쩡하고, 친근해 보인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듯 일상을 극적인 순간처럼 묘사하지는 않는다. 자연스럽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개인을 주목한다.

작가는 2002년 국내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광주비엔날레 초청, 에르메스 미술상 후보 등의 이력을 거치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왔다. 최근 아트 부산과 개인전에서의 큰 호응은 요즘 세대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스냅사진을 '스케치' 삼아 작업을 이어가는 박진아 작가는 평범한 일상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임의로 조합해 화폭에 담는다. 무대 위 배우들처럼 캔버스 위 인물은 재배열되고, 이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수많은 순간 혹은 시간성을 반영한다"라고 그녀의 작품을 조명한 국제갤러리는 전한다.

## 우국원이 묘사한 내밀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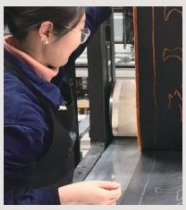
한없이 순수해 보이는 아이와 동물이 그려진 그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전이 숨어 있다. 곰이 든 책은 카를 구스타프 융의 <기억, 꿈, 사상>. 큰 글씨 아래의 필기체 글귀는 "I love sleep. My life has the tendency to fall apart when I'm awake, you know"으로 헤밍웨이의 다소 냉소적인 발언이 새겨져 있다. 작가 우국원은 시기, 질투처럼 내면 깊이 자리한 솔직한 감정을 아이, 동물처럼 순수한 대상을 통해 표현해왔다. 관객이 감정을 동화해 해석하길 바라는 의도를 담았다. 물감을 두텁게 쌓은 마티에르를 붓과 연필로 긁어내 독특한 질감을 구현한 점도 특징. 오늘날 국내 아트 컬렉터들이 주시하는 작가를 논할 때 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기업은 물론 쓰타야 서점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의 창업자 마스다 무네아키增田宗昭가 그의 작품을 소장했고, 최근 옥션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표갤러리 서윤원 큐레이터는 "작가의 시그너처라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살펴보면 그 속에 주제 의식이 투명하게 담겨 있다. 삶의 이면을 위트 있게, 때로는 통렬하게 짚어낸 텍스트를 주목해보라"라고 전한다.

'I Hate Morning' © 표갤러리

'Balloon Blowing' © 디스위켄드룸

## 박신영이 당도한 낯선 세계

박신영의 작업은 판화, 드로잉과 설치 작업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1987년생 신예 작가인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영국왕립예술대학에서 판화 전공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영국왕립예술대학에서 수여하는 오거스트 마틴 상Augustus Martin Prize를 수상하기도 했다. 북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낯선 환경을 여러 차례 경험한 그는 이방인의 시각에서 각인된 시선과 감정을 작품에 담아낸다. 이질적 문화와 환경을 독창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에서 환상적이고 주술적인 색감과 질감을 감상할 수 있다. 아트 컬렉티브 겸 갤러리 '디스위켄드룸'의 김나형 디렉터는 작가의 작업 방식에 주목해 감상하길 권한다. "판에 그림을 그려 찍어내는 모노타입 판화의 고된 공정을 거치는 작품은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텍스처, 복합적이고도 신선한 미감을 통해 관객을 무의식의 세계로 안내하며, 저마다 다른 내러티브를 상상하게 한다." 지난 5월 한남동으로 이전한 디스위켄드룸의 기획전<거울보다 낯선> 전시에서 박신영의 작품들은 해외 컬렉터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개인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출처] LUXURY 2021년 10월호 안서경 기자